

# 샘보 셋별 배송

주후. 2017년 11월 22일 창간.

매듭달; 12월의 순우리말

## '샘보 셋별 배송'이란?

샘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새롭게 만든 샘보의 특별호입니다. 앞으로 '샘보 셋별 배송'을 통해 샘물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며 빠른 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샘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샘보, 조장들을 보다

### '샘물, 보다'

샘물, 보다는 코로나19호 인해 취소된 국토순례의 대체 프로그램이다. 샘물, 보다는 '보'자는 '그리스도를 보다/ 나를 보다/ 서로를 보다 / 함께 보다/ 이웃을 보다/ 환경을 보다/ 시대를 보다/ 보다 나은 / 歩(걸을보)/ 保(지킬보) / 맛보다/ 돌보다'의 의미를 담았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뜻을 좇아 세상을 돌보고 샘물의 선후배가 한 조원이 되어 선배는 후배를 섬기고, 후배는 선배를 따르며 함께 성장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샘물, 보다는 크게 생명, 나눔, 섬김, 환경을 주제로 10/28부터 10/30까지 진행되었다. 예비 중등부터 11학년까지 선후배가 함께한 23개의 조는 그 안에서 각기 다른 활동들로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섬겼다. 샘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국토순례 대신 샘물, 보다에서 섬긴 11학년 조장, 부조장들을 만나보았다.

### -국토순례를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김수빈(1조) 더 악화되는 코로나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사실 처음에 듣자마자 아쉬움이 컸다. 다른 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김소은(9조) 10학년 편입생인데 2019년 국토순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생각을 하니 정말 아쉬웠다.

김중우(9조) 나한테는 마지막 국토순례인데 못간다고 하니 너무 충격,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진영(11조) 11학년에서 조장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유비나(16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아쉬웠다. 마지막 국토순례를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더 아쉬웠던 것 같다.

###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각조의 계획들이 있었나요?

(1조) 민속촌 가서 쓰레기 줍기

(9조) 수화 배우기, 택배기사님들 찾아뵙기, 비누 만들기

(16조) 호빵 나눔, 노숙자들을 위한 섬김

### -자신의 조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수빈(1조) 우리 조는 보라색이다. 저희가 이번 샘물, 보다 때 마스크 줄을 맞추었는데, 그게 보라색이거든요. 완전 큐티뽕작!

김중우(9조) 우리 조는 칠판 색이다. 볼 때 편안한 칠판 색처럼 우리 조도 조원들끼리 편하기 때문이다.

이진영(11조) 우리 조를 색으로 표현하자면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 개나리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순수함과 병아리처럼 귀엽기 때문입니다.

### -샘물, 보다에서 조장/부조장으로

####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오찬서(1조) 처음에는 얇은 추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추억들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만남으로 이제는 깊은 인연이 되었고 이런 기회를 주신 샘물의 선생님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다.

김소은(9조) 조장은 역시 불씨 역할만 한다! 조를 이끌어가는 건 조원들 같습니다!

이진영(11조) 국토순례를 대신해 후배들과 만나서 함께 웃고 떠들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 -샘물, 보다는 하며 아쉬운 점이

####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오찬서(1조) 만나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을 것 같다.

김소은(9조) 다 같이 설 시간이 있었다면 더 친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유비나(16조) 조금은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중간에 비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다.

### -내년에 조장이 될 10학년에게 한마디

김수빈(1조) 조장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겠지만 꼭 해봐! 오히려 더 재밌고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너희들이 조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걸?? 잘 할 것 같아!

김소은(9조) 나는 정말 부담감이 많았는데 훌륭한 조원들 덕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후배들을 믿으면 되는 것 같아.

이진영(11조) 조가 잘 안됐다고 실망하거나 아쉬워하지 말고 조가 어색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유비나(16조) 나는 이번 샘물, 보다는 통해 섬김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또는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 너희도 샘물, 보다는 통해 섬김에 대해 더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너희는 분명 잘 할 거야! 파이팅!

## ♡조장의 말들♡

이번 프로젝트가 너희들에게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ㅎㅎ 어리바리하고 부족한 조장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고, 너희들한테 잘 못해 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커.. 막판에 막 편해지고 친해지려던 참에 끝나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우리 재밌게 했던 것 같아. 모두들 수고했고 고마워!! 우리 조가 짱!!  
-김수빈(1조 스마일)

우리 스마일 조! 애들아 진짜 수고했어~거의 하루에 한 번 계획이 바뀐 것 같은 우리조 ㅎㅎ 부족한 부조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힘든 티 안 내고 항상 웃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조원들, 선배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준 7학년 정, 이세, 유빈이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나중에는 많이 웃어주고 선배의 역할도 잘 완수한 유은, 은주, 소은이. 또 우리 조에 많은 웃음을 준 김시현, 김동현!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준 수빈, 민서, 하울쌔.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항상 스마일 하기를 기도할게.  
-오찬서(1조 스마일)

너희들이랑 국토순례를 갔으면 더욱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국토순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것 같아. 중학교 친구들을 마주칠 일이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만나면 인사하자~ 세현이, 길이, 주원이, 다은이, 예린이, 태영이, 준서, 시원이, 지원이 모두 수고 많았어!!  
-김소은(9조 샘물구조)

우리 조원들 수고했고 재밌었다!  
-김중우(9조 샘물구조)

부족한 조장이었겠지만 잘 따라와 주고 도와주고 노력해 줘서 고마워!  
-이진영(11조 하나하나조)

16 2Ys 조원들! 부조장 비나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서먹서먹하고 어색했는데 다 같이 연탄배달까지 하게 될 줄이야!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 국토순례를 가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처음 하는 '샘물, 보다'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는데 너희들 덕분에 우리 조 프로젝트는 대성공으로 끝난 것 같아. ) 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샘물, 보다는 너희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한 명 한 명 모두 고마워!  
-유비나(16조 2Ys)

# 샘물, 하나님의 세상을 보다

2020년 샘물중고등학교는 컬러풀 프로젝트-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술과를 중심으로 전교생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7일을 담았다. 이에 샘보에서는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현장에서 가장 수고한 미술 선생님과 11학년 미술 전공반을 인터뷰하였다.

## <나래쌤 인터뷰>

- 이번 브릿지 프로젝트의 테마는 무엇인가요?

천지창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 브릿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컬러풀 프로젝트라는 것을 총괄이사님과 교장선생님께 제안받았는데 예전부터 생각했던 은혜관과 샘물관 사이를 그림으로 다리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술전공반이 7명인데 7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천지창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번 브릿지 프로젝트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무지개색입니다. 이유는 7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게 7개의 색이기도 하고 모든 색을 담고 있기도 하며 하나님의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긴 일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떻게 칠하면 되는지 전공반 선배들이 설명해 주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쪼르르 모여 듣고 있고 선배가 설명해 주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그림으로 인해 하나가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조금이지만 보탬이 되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 브릿지 프로젝트와 같이 학교의 다른 시설을 꾸며본다면 하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재미있게 쉬고 놀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놀이터 겸 의자가 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꾸미고 싶습니다.

-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겠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놀랐습니다.

- 같이 수고한 미술 전공반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너무 수고 많았고 더우나 추우나 웃음으로 승화시켜줘서 고마워. 사랑해."

## <11학년 미술 전공반 인터뷰>

- 브릿지 프로젝트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나요?

신유나(11-2)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7일을 7명의 미술전공반 학생들이 하루씩 맡았습니다. 그림을 통해 지나가는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창조계획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 특별히 미술전공반에게 브릿지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인가요?

박예린(11-2) 학교에서 부탁해 진행한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전교생이 다 같이 참여한 공공미술이고 도안(스케치)은 미술전공반이 맡았기 때문에 서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예린(11-2) 그림 그릴 당시에 날씨가 너무 추워 그림을 덮어둔 그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감정/생각에 대해 나누어주세요.

이희원(11-2) 다 같이 협동해서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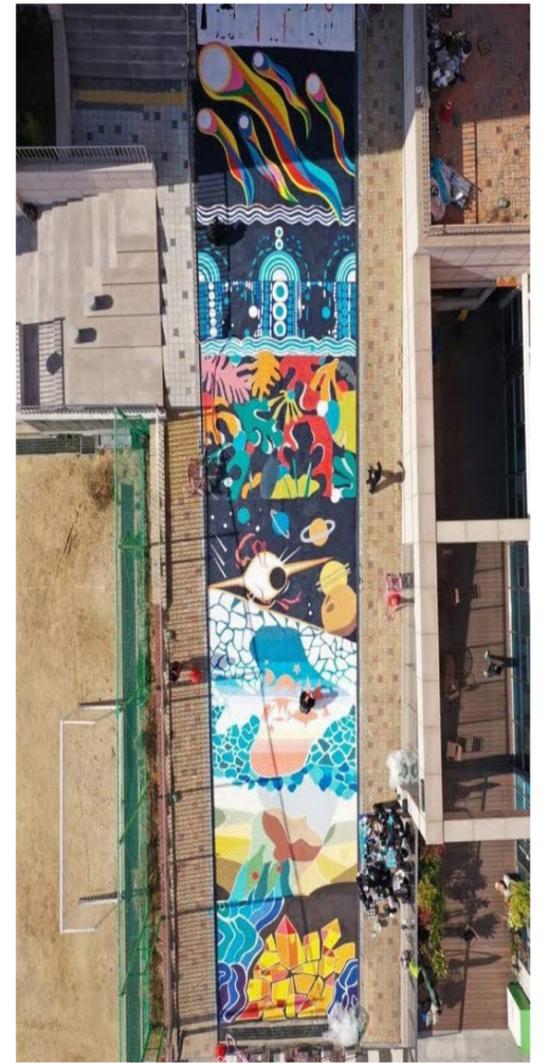
-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김중우(11-2) 시안을 그릴 때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학교에서 요청한 작업이기 때문에) 고치기를 반복했던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힘들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 함께 수고해 주신 나래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너무 수고하셨고 솔직히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던 브릿지 프로젝트는 11월 10일에 마무리되었다. 브릿지 프로젝트 제목은 5학년 은혜반 고명한 학생이 응모한 'In the Beginning'으로 결정되었다.



이시원, 정진영 기자

# "변화 되고 있는 샘물의 공간"

-이사장님과의 인터뷰

학교 이곳저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하는 모습은 봤어도 왜, 무엇을 공사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 달라질 샘물의 공간을 미리 들여다보자.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기초 외벽 공사는 크게는 지난 9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가 나서 토지가 침화되고 은혜관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파손돼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토사 200톤가량이 아래로 떨어져서 F동에 유치원 학생들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계속 놔두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산사태가 나지 않게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공사와 옹벽을 세워 옹벽을 통해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 공사할 때 은혜관 앞쪽 축구장 스탠드가 F동까지 쪽 갔어야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반밖에 하지 못해서 이번 공사에 짝 펼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체육 활동 때에는 운동장을 반으로 나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회 때는 운동장 전체를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F동 앞쪽에 옹벽을 치고 있는데 그쪽에는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여름에 놀 수 있는 미니 물놀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A, B동 앞 별관에 있는 자갈밭을 아스팔트로 까는 공사도 진행하였고 A, B동 사이 공간에 콘크리트로 바닥을 다지고 지붕을 씌워서 목공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동 옆 주차장에 컨테이너 형태의 도자기 공방을 만드는 공사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될 수 있을지는 미정이지만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다음 주에 콘크리트 거푸집을 만든 후 공사가 모두 종료됩니다. 12월 중순까지는 도로 작업을 종료하고 이어 내년 봄에 컨테이너 공사와 목공실 천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시원, 최지원 기자

# "12학년에게 전하는 메시지"

-반디쌤, 하늘쌤, 드림쌤, 리사쌤, 하꿈쌤, 향기쌤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제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반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히 주께 나아가 제때에 주시는 도움과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반디쌤

12학년 여가들아~!!  
올해 더 특별한 시간을 이겨낸 너희가 기록하고 자랑스럽다! 끝까지 건강하게 잘고 닦은 살갗은 잘 보워하고 노름. 해냄 손 속 활짝 이겨내자. 가장 좋은 선물 하러가는 은혜의 해냄을 기대하자! 사랑하고 축복한다!  
-방고은-

-하늘쌤

12학년 여가들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디명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수놓음 봉 제트, 대항을 자원할 때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시다. 끝까지 레미링!  
-드림쌤

-드림쌤

[여러분들이 해냄을 선택할 때 도망의 동나눔에서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해서, 성경의 능동으로 여러분에게 도망이 차고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13]  
언제나 알방을 약속해주시고, 기쁘고 응답해주시는 해냄의 놀라운 방법과 사랑의 기적을 만드세요!  
영원간의 보석같은 빛나는 12학년 제자들!  
앞으로 너희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삶은 살기 위해 해냄을 기대하자 ^^  
-LisaⓅ-

-리사쌤

지난 1년동안 누와연세 팔려왔던 7기 제자들.  
너희가 보낸 1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누와와 잘 알고 있는 한 사랑으로 계속되는 너희 경을 응원한다.  
세상은 갖추어진 것을 선택하지만, 해냄에서는 선택하신 것을 갖추어진 것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의 배움을 마음껏 펼치고 만! 기도할게!  
-하꿈쌤

-하꿈쌤

사랑하는 샘물 legend 7기 ~!!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너희의 모든 방정음이 주님 손에 있음을 꼭 기억하길.  
너희의 수교의 열매를 주님에게 기쁘게 받으실게야.  
끝까지 중보할게!!  
-향기쌤

-향기쌤